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1

소개 1부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세션, 여호수아서 소개, 1부, 여호수아, 연대, 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avid Howard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에 있는 베델 신학교에서 신학교 수준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36년차를 마쳤습니다. 저는 실제로 몇 달 전에 은퇴했고 계속해서 해외에서 가르칠 것이며 미국 여기저기에서 보조 강사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학문적 일로서 평생 동안 구약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왜 구약성경에 들어왔는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에게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첫 15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경건한 교사, 목사님, 부모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신약성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구약성서를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저를 대학원에 부르셨을 때, 저는 구약성서에 대해 스스로 조금 배우기 위해 가야 할 곳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생각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정체성의 위기였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이 방향으로 부르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구약성경을 선택했고, 하나는 다른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르쳐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고, 교수님들은 그러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군동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구약성경의 문맥과 언어, 역사를 공부했고, 80년대 초에 베델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카고 지역의 트리니티 신학교와 뉴올리언스 침례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고, 지난 18년 동안 이곳 베델에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서를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연구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석사와 박사 과정의 세 가지 수업에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서를 읽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번역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책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책에 대한 해설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책을 깊이 파고들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여호수아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고, 이 책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소개하고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책의 첫인상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번 "그건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라는 노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상이고, 정복이고, 그 다음에는 땅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책에는 엄청난 집중력이 있고 가나안인들과의 전투와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전투를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과정은 실제로 전투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보여지고, 하나님은 전투 배후의 주요 행위자이자 원동력이며,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일종의 방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이 우월한 군사력이나 자신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실제 전투가 전혀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로 전투는 24장 중 5장 정도, 책 24장 중 6장, 6장부터 12장까지만 소모합니다.

7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의 전투를 위한 준비와 땅의 분배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즉 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식처, 기업의 장소,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장소인 가나안 땅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세기 동안의 삶.

이 책은 여호수아가 여러 연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전투에 일종의 영적인 오버레이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관해 자주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은 멸절,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며, 이슬람 지하드와 모든 이교도 등을 몰살시키려는 많은 급진 이슬람 단체에 대한 현대 뉴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특별한 긴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동일한 유형의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순서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갖는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이 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그리고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을 대하신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악한 사람들의 징벌과 갈등을 기록한 책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의 개요에 대한 일종의 소개입니다. 그럼 책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다면 이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서를 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문맥, 날짜를 살펴본 다음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 뒤에 있는 지도를 참조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문학적 맥락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정경, 즉 구약의 정경에 이 특정 지점에 들어맞는지 언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장을 시작하기 전에 책의 전체 주제로 볼 수 있는 내용과 몇 가지 보조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1페이지나 1장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제목 페이지에 여호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책의 제목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주인공 여호수아에게서 따왔습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였으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Yhoshua)인데, 이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 혹은 야훼(Yahweh)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성한 이름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그 이름이 예수(Yesus)로 번역되는데, 이는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민수기 13장에서 그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이는 매우 유사하며 구원 또는 구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16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로 바꾼 사람이 모세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경을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위대한 움직임을 보는 렌즈를 통해 읽는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사람인 여호수아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보면 그는 오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출애굽기 17장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모세의 조력자이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따르면 그는 모세가 젊었을 때부터 그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고 긍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온 두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임무에 초점을 맞춘 다소 확장된 구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민수기 27장 8절). 위임예배는 온 회중이 참여하는 매우 엄숙한 예배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셀이 주재하였고, 예식 중에 모세의 손에 안수되어 모세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엘리에셀과 함께 땅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자체에서 우리는 땅 분배가 주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장소를 볼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제사장인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 지도자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 지도자인 그의 두 사람이 땅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인하시는 엄숙한 일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생애를 마감할 때 여호수아가 지정된 후계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슷한 용어로 말씀하실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회막이 성막과 별개의 천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세를 탁월한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세 구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이후로 없었습니다. 34절 9절에 여호수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분명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나머지 구약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지정된 후계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의 자리로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우뚝 솟은 방식으로 모세와 비교된 적이 없지만 여호수아 오경에서 그는 분명히 모세를 계승할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의 자리를 채울

사람입니다. 법이나 그런 것들을 준다는 의미에서 리더는 아닙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다는 말이 거의 12번이나 나옵니다.

온 나라가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기로 맹세했습니다. 사역 초기인 1장에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다 준행하리라 하셨으니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24장에서 그를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그의 도전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마지막 연설에서 여호수아가 권위있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큰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이 끝날 때 그는 주님의 종으로 언급됩니다.

이 책에는 직업 주제로 성장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곳으로 향했다면 여호수아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종으로 불리우는 곳이 여호수아서에서 16, 18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 오경 전체에서보다 여호수아서에서 더 많이 불립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곧 모세의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지명된 후계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책의 저자는 아직 그를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종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자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는 완전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적어도 책의 저자로부터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16~18번이나 여호와와 종으로 불리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 사망 통지서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책의 끝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24장 29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와 종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세가 되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종으로 지명되기 전에 죽어야 했지만, 이 책은 우리가 모세에게 받았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에게 그 영예를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남자 조슈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책 자체, 저자, 책 편찬 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익명입니다. 실제로 책 전체를 쓴 사람이 책에 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누가 책을 썼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랍비들은 그 책을 저자인 여호수아의 책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책의 일부, 특히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부분을 나중에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에는 오늘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언급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 아마도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장 2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사람들이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책의 일부를 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책의 일부를 녹음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이 글을 다 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 견해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진실로 이해하고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며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이 확증하지 않는 것들을 추측하려고 할 때 바퀴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모세 오경의 저자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가 모세 오경의 대부분 또는 전부의 저자임을 여러 곳에서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등의 저자가 바울임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이 익명인 경우 저자가 누구일지 추측하는 것이 흥미로운 연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추측하는 연습일 뿐이며 책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필수적이었다면, 내 견해로는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누가 저자인지, 누가 저자인지를 나타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곡 연대에 관해서는 다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날까지의 언급은 여호수아의 생애를 지난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것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실입니다.

3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니 그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책의 최종 형태가 명확하게 쓰여진 후에 분명하게 쓰여졌는데, 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까지의 몇몇 언급은 아마도 사무엘의 시대를 나타낼 것입니다.

6장에는 라합이 오늘날까지 여리고에 살고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그녀 자신이 몇 세기 동안 살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의 사건 이후 상당히 빨리 기록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3장 5절에는 기원전 8세기, 700년대 호세아 시대에 다윗의 집이 언급되거나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집, 그것은 다윗 자신이 살아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분명히 다윗의 집, 다윗의 혈통에 대한 언급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에서 다윗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며 아마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짧은 대답은 우리도 글을 쓴 날짜를 실제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책의 사건 날짜, 집필 날짜는 사건 날짜보다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가 있으며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주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의 날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짜가 언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에는 전통적인 날짜가 열왕기상 6장 1절의 핵심 참조 자료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날짜에 대한 큰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따라서 열왕기상 6장의 문맥은 이제 몇 년 후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던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기초를 쌓은 때는 솔로몬이 죽은 지 480년이 되는 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살았던 시기와 그 날짜가 언제였을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4년차에는 대략 기원전 966년, 즉 967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446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견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주하여 그 땅을 향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 그들이 마침내 여호수아 아래로 들어갔을 때는 1406년쯤이었을 것입니다. 1400은 그에 대한 적절한 어림수입니다.

문제는 약 100년 전, 즉 20세기 초에 고고학이 중동에서 물건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지중해 동부 전역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파괴, 도시 파괴, 사람들의 이주 및 이주 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문명의 붕괴와 같았고, 삶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핵전쟁의 여파와 거의 같았습니다. 보통 기원전 12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아마도 몇십 년 후인 1100년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00이 그에 대한 적절한 어림 숫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현재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의 끝으로 간주됩니다. 기원전 1200년은 철기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된 지 조금 후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이러한 파괴 층 중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도시들을 파괴하기 위해 들어왔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208년경 메레넵타 왕 치하의 이집트 비석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민족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이집트 외부인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아마도 그들이 방금 나왔을 것이라는 견해를 강화할 것입니다. 비판적 학문의 주류에는 후대에 동참할 훌륭한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두 날짜 사이에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통 학자로서 당신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짜에 가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른 날짜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열왕기에 이런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보는 학자들은 480년을 40대를 12주기로 생각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본다. 따라서 12 곱하기 40은 480이고 한 세대를 실제 세대로 본다면 사람들의 수명은 아마도 20~25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 구절이 읽는 방식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날짜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제4년에 솔로몬이 통치한 시브월은 둘째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달력 날짜가 되려고 노력하고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연도, 월, 심지어는 그 정밀도 수준까지 실제 숫자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 날짜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연수를 더하면 사사가 되었고 그 땅이 여러 해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40년 또는 80년 동안 휴식을 취했다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큰 숫자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왕 사이의 400년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판사의 통치 기간과 판사의 임기를 압축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사들이 개별 사사들이 반드시 땅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끔 이 판사, 저 판사 밑에서 지역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연대순으로 연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겹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관점은 그것이 이전이든 이후이든 관계없이 그 숫자 중 일부를 압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빠른 날짜가 더 좋은 날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406년이나 1400년경에 모세의 죽음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재임 기간은 아마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건의 기간인 약 30년, 5~7년간의 활발한 전투, 그 다음 약 25년 동안 땅에 정착하는 일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건의 날짜에 관한 약간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그린 지도는 지리적,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3000년의 구약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히타이트인을 알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기원전 1400년부터 1200년까지 이 지역을 몇백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시리아인과 바벨론인은 끊임없이 서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 지도의 대부분은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재산은 쇠퇴했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재산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시대 말기에 바빌로니아인들을 정복했고 기원전 330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근동 지역을 정복할 때까지 지배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집트인의 권력은 대부분 기원전 3000년대와 2000년대, 2000년대부터 약 1000년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동등한 권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약 3000년의 구약 역사를 나타냅니다. 내가 빨간색 대문자로 붙인 라벨은 파란색의 여러 세기 동안의 주요 세계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역사를 통해 삶을 살았던 배경의 작은 지역 세력과 국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람이고, 수도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현대 이름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시리아이고, 요즘 뉴스에서 듣는 것과 같은 다마스쿠스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곳의 잘못된 지도입니다. 요단강은 그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사해 동쪽에 살았고, 에돔 사람들은 사해 남동쪽에 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곳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시내 반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이주했는데,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북쪽에 두었지만, 만약 그가 남쪽에 있다면 그는 여기 하란

도시로 이주했고, 여기에서 그는 땅으로 내려가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의 가족을 이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정착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이 모두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파라오의 집에서 일어나며, 그 후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편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시내산 어딘가에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곳이 전부일 것이다.

그들은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민 13,14장). 정탐꾼들은 나쁜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의 끝에서 요단강 바로 동쪽, 여리고와 예루살렘 동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펼쳐지는 곳이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범한 죄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서에서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여 그 행동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남쪽과 북쪽으로 펼쳐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역사적, 지리적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언급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는 이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입니다.

이것은 David Howard 박사와 Ruth를 통한 여호수아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소개 1부, 여호수아, 날짜 및 저자의 첫 번째 세션입니다.